

미국의 식품소비 패턴 변화

김재수

주미 대사관 농무관, 경제학 박사

Change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in America

Kim, Jae Soo

The Korean Embassy, Agricultural Counsellor

I. 서 론

미국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발달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밀, 콩, 옥수수등 풍부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이다. 농산물 수출로 연간 120억불 가량의 수지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약 550억불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이러한 생산 여건을 토대로 미국인은 풍부하고 다양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미국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미국을 식품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원주민인 인디언을 비롯하여 유럽인, 남미인, 아프리카 및 아시아인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국의 여러 가지 음식이 애용되고 있고 음식의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음식문화도 다양하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다양한 음식은 미국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거나 새로운 식품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쇠고기 등 육류를 주로 하고 감자 등의 채소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육류중심의 식단을 유지해 왔으며 음식의 가짓수는 육류, 채소, 과일 등 여러가지 종류로 다양하나

영양을 중시하는 음식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육류중심의 소비패턴은 비만이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아니라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체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5%가 비만상태에 있고 연간 30만명이 비만으로 인한 심장질환, 당뇨, 암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비만을 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년 기준으로 연간 1,170억불에 이른다. 건강식단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급식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균형식단이 강조되고 관련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채소와 과일의 소비 증대와 더불어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육류전체의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며 육류 종류별로 쇠고기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닭고기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베네만 미 농무장관은 2004년도의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과제를 건강한 식품공급체계를 확립하는 것¹⁾이라고 하고 금년도에 식품분야에서 균형적이며 안전한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인의 식생활에서 비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과제로 대두

접수일: 2004년 2월 23일 채택일: 2004년 3월 3일

Corresponding Author: Kim, Jae-Soo Tel: 1-202-939-5673
Fax: 1-202-387-0402 E-mail: bijoujsso@hanmail.net

1) 미 농무부 발표자료(USDA, 2004. 2.19). 베네만 농무장관은 2004.2.19-20 워싱톤에서 개최된 2004 미국 농업전망대 회에서 2004년도에 농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건강한 식품공급체계의 확립(ensuring a healthy food supply)이라고 하고 비만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식품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식품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 진전에 따라 식품비 지출 패턴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의 대미수출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미 한국 음식도 미국 주류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 언론사의 우리 식품에 대한 기사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우리 식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본 우리 식품업체들의 미국 진출도 두드러진다. 풀무원은 2002년 4월 뉴욕공장에 이어 지난 하반기에 풀러톤에 세번째 공장을 세우고 미국 두부시장의 제패에 나서고 있다. 농심도 2004년에 로스엔젤레스에 라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현지에 별도법인 제일제당푸드를 설립하여 쌀 라면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남부햄도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에 현지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활발히 햄 수출에 나서고 있고, 해태도 쌀, 육가공식품, 잡곡 등을 현지 판매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식품업체의 미국진출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식품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의 식품소비패턴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II. 식품소비패턴의 특징과 변화

1. 식품소비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으로 식품 소비는 소득수준, 인구, 도시화 정도, 가격,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으나 낮으나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에 많은 차이가 난

다. 최근의 미 농무부의 조사결과²⁾에 의하면 저소득 국가일수록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음식과 의복 같은 필수품에 소비하며, 고 소득 국가일수록 집, 교육, 오락 등 사치품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저 소득 국가의 경우는 가격수준이 낮은 시리얼(cereal)등 주식(staple food)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 소득의 국가의 경우에는 낙농 제품과 육류의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³⁾. 미국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 성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Popcom. F.B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구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자기중심성향(egonomics), 자기보호본능(cocooning), 다양한 역할수행(ninety-nine lives), 환상적인 탐험욕구(fantasy adventure), 건강추구욕구(staying alive), 약간의 방종욕구(small indulgence), 회귀본능(cashing out),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본능(down aging),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단체행동(vigilant consumer), 지구보호본능(save our society) 등을 나타낸다. 식품의 구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식품의 소비에 있어서도 특별한 소비행태를 나타내는데, Sloan(1996)은 미국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경향을 감각적(sense appeal), 접근성(access and interception), 가정 대체식(home meat replacements), 건강증시(health-promoting ingredients), 신선식품 선호(perishable prevail), 생활식(lifestyle foods), 과일과 채소의 선호(fruits and vegetables flourish), 상호작용(interaction), 간편식(where's the center of the plate), 충동구매(impulse)의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구매나 소비패턴은 교육수준, 결혼 여부, 인종, 가치, 경제 수준,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2) Changing Structure of Global Food Consumption and Trade, USDA. ERS, p.21

3) 저 소득 국가의 경우 총 식품 지출 중 27% 정도를 시리얼이나 빵과 같은 주식에 소비하며,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12% 정도를 차지한다(International Evidence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USDA ERS). 또 저 소득 국가의 경우 식품소비가 가격이나 소득수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고 소득 국가의 경우는 덜 민감하다. 예를 들어 호당 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탄자니아의 소비자들은 8% 정도 식품 구입비가 증가하나, 필리핀은 6.5%, 미국은 1% 정도의 구입 증가를 가져온다(Research Briefs, International Evidence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USDA, 2003). 다만 최근의 조사결과는 가격이나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품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주식(staple foods)의 경우에는 가장 변화가 느리다는 결과도 나타난다.

4) 광동경, 미국의 전통식문화의 형성과 적응을 통한 발전(한국식생활 문화학회, 1998 추계학술 심포지움, pp.34-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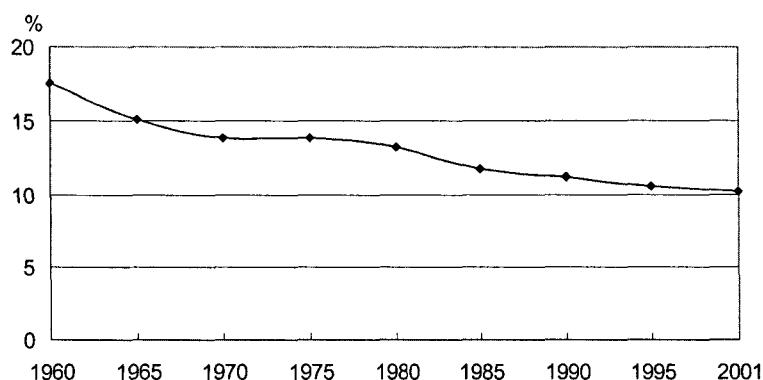
에 식품 소비만의 특별한 행동 성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⁵⁾.

2. 식품소비지출 비중의 감소

오늘날 미국의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의 약 10% 정도를 음식비에 지출한다. 이 비중은 지난 1960년대의 18% 수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수치이다.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0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비의 지출 감소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식품소비지출 비중감소는 개인의 실질 부가가치 증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실질 부가가치가 증대하였기 때문에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 8.5%의 실질 부가가치가 증가를 보였고 이러한 개인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음식비 지출 증가를 능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인의 가처분소득에서 식

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나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 전체 소득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1년에는 17%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11%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에는 거의 11%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식품소비 지출의 내역을 가정 내 소비지출(내식)과 가정 외 소비 지출(외식)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7-98년의 경우, 가정내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2%, 가정외식은 38.8%인 한편 10년 전인 1988-89년의 경우는 가정내식의 비중이 58.9%, 가정외식이 41.1%로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가정내식의 비중이 2.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정외식의 비중은 2.3% 포인트 감소하였다. 가정내식의 비중이 증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비자들이 이미 조리된 제품(prepared foods)을 가게에서 구입하여 가정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자료: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2002, ERS, USDA, 2003, p.1

그림 1. 가처분 소득 중 음식비지출의 변화(1960-2001)

5) 개인이나 국가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음식습관을 이해하거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데는 자의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식품소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추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 인종국가이므로 인종과 지역, 소득과 생활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소비패턴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식품의 소비 패턴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하여야 하며 식품 소비 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표 1. 미국의 식품 소비지출의 변화

구 분	1988~89	1997~98 (단위 : %)
가정 외식	41.1	38.8
가정 내식	58.9	61.2
곡류 및 빵류	9.1	9.6
육류, 가금류, 어류, 달걀	15.6	15.3
쇠고기	5.0	4.4
돼지고기	3.0	3.2
닭고기	2.4	2.9
어류	2.1	2.1
낙농 제품	7.3	6.9
과일	5.8	5.9
채소	4.8	5.0
설탕 및 당류	2.1	2.7
비 알콜성 음료	5.7	5.3
지방과 유지	0.6	1.7
기타 조리제품	8.0	8.8

자료 : Food Expenditures by U.S. Households, USDA. 2003, p.5

있다.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TV의 영향, 반 조리제품의 보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내식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가정 내식의 비중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구입 품목에 있어서도 과거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표 1에서보는 바와 같이 시리얼과 빵류는 과거 1988-89년에는 전체의 소비지출액의 약 9.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9.6%로 다소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다양한 조리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편의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육류나 가금류, 어류, 달걀 등은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이러한 제품의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류별로 쇠고기는 10년 전에 비해서 0.6%가 줄어든 반면 가금류의 소비는 0.5% 늘어났고 과일과 채소의 소비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2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인의 식품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류, 가금류, 어류 및 달걀이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곡류 및 빵류가 16%, 낙농제품이 11%, 과일이 10%, 음료가 9%, 채소가 8%, 설탕 및 당류가 4%, 지방류가 3%, 기타가 15%로, 이러한 구입비용의 변화는 소비

량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식품 소비지출의 다양성

미국인의 식품 소비패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지역이나 인종, 또는 소득 수준이나 연령별로도 나타난다. 미국은 190여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로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식품의 소비패턴을 일반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최근 미 농무부에서 5,000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종별, 소득 수준별로 식품 지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비의 총 지출액 면에서는 계절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분적으로 봄에는 다소 음식비 지출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지출액이 가장 낮은 등 다소간의 계절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당 총 음식비 지출액을 보면 봄에는 1인당 40.46불 수준이며 겨울은 40.13불 수준이다. 전체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계절별 음식비 지출액을 가정 내식과 외식으로 나누어 보면 가정 내식의 경우는 가을에 가장 지출액이 높으며

(25.62불) 여름에 가장 낮다(23.79불). 가정 외식의 경우는 여름에 가장 지출비중이 높고(16.48불) 가을에 가장 낮아(14.77불) 여름에는 가정 내에서 식사를 적게 하게 자주 외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음식비의 지출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바, 남부지역 가정의 경우가 가장 음식비에 지출을 적게 한다. 반면 북동부 지역 가정의 경우는 음식비 지출이 가장 많다. 남부지역 가구의 경우, 주당 평균 37.87불을 지출하나 북동부 지역의 경우는 43.32불을 지출한다. 이 추세는 가정 내식이나 외식에서도 비슷한 추세이다. 남부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음식비 지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특성이나 상대 가격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음식비 지출패턴은 인종별로도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흑인의 음식비 지출이 다른 인종 보다 적다. 흑인의 경우, 주당 음식비 지출액 규모는 31.19불이나 흑인이 아닌 가구의 경우는

41.32불을 지출한다. 이는 내식이나 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이유는 소득수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흑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타 인종에 비해 낮아 음식비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소득수준별로 음식비의 지출을 보면 고소득 가정의 경우가 외식이나 내식 모두 소비지출액이 다른 소득 수준 가구에 비하여 많다. 즉 고 소득 가구가 저 소득 가구에 비하여 내식비의 지출도 많고 외식비의 지출도 많은데 이는 음식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고 소득가정의 경우, 소득 중에서 음식비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다섯째, 미국의 식품소비패턴은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미국의 인구도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3천 5백만에 이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전반적인 추세가 고령화 될 뿐 아니라 고령 인구의 구성 비율도

표 2. 계절별, 지역별, 인종별, 소득수준별 주당 음식비 지출 내역, 1997-98

구 분	전체지출액(불) (A=B+C)	내식(B)	외식(C)	소득종 음식비 지출 비중(%)
전체	40.32	24.68	15.64	10.8
계절별				
겨울	40.13	24.34	15.78	10.7
봄	40.46	24.71	15.75	10.8
여름	40.27	23.79	16.48	10.8
가을	40.40	25.62	14.77	10.9
지역별				
북동부	43.32	25.76	17.56	11.1
중북부	39.38	24.06	15.33	10.3
남부	37.87	23.75	14.12	10.9
서부	42.23	25.72	16.52	10.9
인종별				
비흑인	41.32	25.06	16.26	10.6
흑인	31.19	21.25	9.94	12.8
소득수준별				
저소득	32.17	21.84	10.33	35.5
고소득	50.60	28.38	22.22	7.2

자료 : Food Expenditures by U.S. Households, 2003, USDA.ERS. P.7

변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구성비율은 2000년의 경우, 백인 83.5%, 흑인 8.1%, 히스패닉 5.6%, 아시안 2.4%, 인디언 0.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백인이 77%, 흑인 9.5%, 히스패닉 9%, 아시안 4%, 인디언 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⁷⁾. 즉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식품 소비패턴이 연령내의 인구의 구성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는 식품의 구매 비용이나 구매 품목, 외식 지출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차이를 나타낸다. 고령화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에서 5,149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식품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노령 인구는 한 주일의 총 수입 중 약 8% 내지 10%를 음식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주당

36.21불을, 65~74세의 경우는 41.44불을, 55~64세는 43.44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화 될수록 음식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노인들의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전체 평균수준인 5%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반면 25세 이하의 경우 음식비의 지출 비중은 9%, 35세에서 44세는 약 4%를 나타낸다. 노인의 경우, 음식비 지출의 거의 73%를 가정 내의 식사에 사용된다. 외식비의 지출은 75세 이상의 경우는 주당 9.89불이며 이는 65~74세보다 거의 30%나 낮은 수준이다. 반면 45세에서 54세의 가정의 경우는 주당 17.12불을 외식비에 지출한다. 따라서 고령화 될수록 외식비의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구입품목의 경우에도 65~74세 노인의 경우, 음식비 지출 중에서 비알콜성 음료의 구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낙농제품 및 빵류이었고

표 3. 연령별 식품비 지출 현황

구 분	전체	25세 이하	25-34	35-44	45-54	55-64	65-74	75세 이상
가구수(호)	5,149	376	928	1,144	959	667	588	487
연평균수입(세전, 불)	39,926	15,666	40,247	48,788	55,260	41,734	27,492	19,425
음식비지출(주당, 불)	37.97	28.01	34.85	35.62	42.67	43.40	41.44	36.21
외식	14.20	12.80	14.91	14.20	17.12	13.96	13.04	9.89
내식	23.77	15.20	19.94	21.42	25.56	29.44	29.39	26.31
- 곡물 및 곡물제품	1.29	0.95	1.19	1.19	1.32	1.45	1.50	1.35
- 빵 제품	2.50	1.60	2.19	2.19	2.72	3.06	3.00	2.84
- 낙농제품	2.62	1.81	2.60	2.60	2.72	3.09	3.14	2.90
- 쇠고기	1.72	1.44	1.53	1.53	2.03	2.06	1.97	1.64
- 돼지고기	1.27	0.66	1.06	1.06	1.46	1.75	1.57	1.56
- 닭고기	1.17	0.72	1.10	1.10	1.25	1.38	1.51	1.15
- 어류	0.76	0.35	0.65	0.65	0.91	1.04	0.90	0.76
- 기타 육류	0.78	0.47	0.75	0.75	0.81	1.02	0.99	0.81
- 계란	0.28	0.20	0.22	0.22	0.29	0.35	0.36	0.36
- 지방.유지	0.70	0.34	0.56	0.56	0.70	0.94	0.89	0.87
- 신선파일	1.37	0.85	1.09	1.09	1.32	1.72	1.80	2.12
- 가공파일	0.89	0.54	0.74	0.74	0.93	1.08	1.14	1.17
- 신선채소	1.24	0.58	1.02	1.02	1.36	1.70	1.70	1.47
- 가공채소	0.66	0.37	0.57	0.57	0.73	0.83	0.84	0.73
- 비알콜성 음료	4.12	1.85	3.50	3.50	4.36	5.38	5.01	5.44
- 설탕, 기타당류	1.01	0.54	0.87	0.87	1.10	1.37	1.34	1.01
- 기타 조제품	3.43	2.43	3.32	3.32	3.36	4.04	3.44	3.59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DA. 전계서

7) Food Review, 2002. Vol.25. p.4

75세 이상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매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III. 식품 소비량의 변화

1. 식품소비량

미국의 식품소비량은 품목별, 부류별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정한 연도의 소비량 못지 않게 지난 수십 년의 소비 추세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70년부터 1997년의 27년간 미국의 주요한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별로는 과거에 비해 소비량이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품목도 있으며 비슷한 소비 추세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전반적으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한 식품은 적색육, 커피, 음료, 달걀 등이다. 품목별로는 커피가 동기간 중 13.6파운드에서 9.3파운드로 32% 감소하였으며, 우유와 달걀이 23%, 적색육이 16%로 각각 감소하였다. 우유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는 각종 소프트 음료나 과일 음료의 소비 증가가 우유소비를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한 품목으로는 치즈, 소프트 음료, 과일 및 채소, 어류 등이다. 품목별로는 치즈가 146% 증가하였고, 탄산 음료가 118%, 가금육이 92%, 밀가루 및 시리얼 제품이 48%, 당류가 26%, 과일 및 야채가 24%, 어류가 24%의 소비증가를 나타낸다. 곡류의 경우에는 1970년에는 135.6파운드의 소비량을 나타내었으나 1997년에

는 200.1파운드로 상당량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9파운드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쌀의 소비량은 1950년대에는 5.3파운드이었으나 1960년대에는 7.1파운드, 1970년대에는 7.3파운드, 1980년대에는 11.3파운드, 1990년대에는 17.5파운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1인당 소비량은 19.7파운드이다. 주요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2. 적색육 소비의 감소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한다. 아침 식사로는 육류를 주로 사용한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을 섭취하고 있고 점심으로는 고기를 이용하여 만든 샌드위치를 주로 취하고 있고, 저녁은 육류를 주로 사용한 다양한 식사를 한다. 육류를 미국인이 주로 소비하는 이유는 광활한 토지에서 생산된 육류나 가금류의 공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육류의 생산을 위한 사료생산 기반도 튼튼하며, 식생활 패턴이 육류에 적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때문이다. 미국인의 육류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체 육류의 소비는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으나 육류의 종류별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육류는 적색육과 가금육, 어류까지를 다 포함해 소비량을 나타내기도 하나 여기서는 어류를 제외한다. 적색육은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말하며, 가금육은 닭고기, 칠면조고기를 말한다.

표 4. 주요 식품의 1인당 소비량 변화

구 분	1970	1980	1990	1997	(단위 : %) 2000
적색육	131.7	126.4	112.3	111.0	113.5
가금육	33.8	40.8	56.3	64.8	66.5
어류	11.7	12.4	15.0	14.5	15.2
낙농품	563.8	543.2	568.4	579.8	593
지방 및 유지	52.6	57.2	62.8	65.6	74.5
과일	237.7	262.4	273.5	294.7	279.4
채소	335.4	336.4	382.8	416.0	428.4
밀가루 및 곡류	135.6	144.7	182.0	200.1	199.9
당류	122.3	123.0	137.0	154.1	152.4
커피	13.6	10.3	10.3	9.3	na

자료 : Food Consumption, Prices, and Expenditures, 1970-1997. USDA, ERS, 1998. Agricultural Fact Book, USDA. Mar. 2003

적색육과 가금육을 합한 전체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1970년에는 165.5파운드(적색육 131.7 가금육 33.8) 이었으나 1980년에는 167.2파운드(적색육 126.4 가금육 40.8), 1990년에는 168.6파운드(적색육 112.3 가금육 56.3), 1997년에는 175.8파운드(적색육 111.0 가금육 64.8)로 조금씩 증가하였다⁸⁾. 2000년에는 육류 소비량이 180파운드(적색육 113.5, 가금육 66.5) 수준이며 이는 1970년보다 약 15파운드 증가한 수준이다. 1970년 이후의 전체 육류 소비량 증가의 대부분은 가금육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즉 전체적으로 육류의 소비는 늘어났으나, 동기간 동안에 증가한 적색육의 소비증가의 34%가 가금육의 소비증가에서 기인한다.

반면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색육의 소비는 지난 1970년에는 1인당 소비량이 131.7파운드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1990년에는 112.3파운드, 1997년에는 111.0파운드, 2000년에는 113.5파운드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적색육의 소비량은 1970년에 비하여 1인당 21파운드의 소비 감소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소비량은 1970년에는 약 80파운드이었으나 1975년경에 소비량이 증가하여 약 90파운드를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0년에는 약 65파운드 정도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쇠고기와 송아지고기는 약 15파운드의 소비량 감소를 나타내나, 돼지고기는 약 1파운드 정도의 소비량 증가를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금육은 동기간동안 34파운드의 소비 증가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1인당 육류소비는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근 미국인의 육류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 등 가금육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닭고기 소비는 1970년에는 33.8파운드 이었으나 1980년에는 40.8파운드, 1990년에는 56.3파운드, 1997년에는 64.8파운드, 2000년에는 66.5파운드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측면의 요인이나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비자 선호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저 콜레스테롤 육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되므로 여성들이 시간 절약적인 가금육(time saving poultry meat)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금육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가격측면에서는 가금육에 비해서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쇠고기 소비는 줄고 가금육 소비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가금육의 소비증가를 단순히 한 두 가지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시간, 가격, 소비 선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3. 채소와 과일의 소비증가

최근 미국인의 식품소비에서의 특징은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채소와 과일의 1인당 전체 소비량은 1997~99년의 경우, 약 741파운드이다. 이 소비량은 20년 전인 1977~79년의 소비량에 비하면 거의 25%나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미 농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채소의 1인당 소비량은 2000/02년에 445파운드에 이르며 이 규모는 1980/82년도의 소비량에 비하여 약 25%나 증가한 것이다. 채소류의 소비량을 연도별로 보면 1970년의 335.4파운드의 소비량이 1980년에는 336.4파운드, 1990년에는 382.8파운드, 1997년에는 416.0파운드, 2000년에는 428.4파운드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채소류 소비증가의 대부분은 가공 감자가 차지하고 있는 바, 전체 채소류 소비량의 27%나 차지한다. 가공감자의 소비는 주로 프렌치프라이나 칩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1인당 냉동감자의 소비량은 58파운드에 이른다⁹⁾.

과일의 경우에는 1970년에 237.7파운드의 소비량을 나타내었으나 1980년에는 262.4파운드, 1990년에는 273.5파운드, 1997년에는 294.7파운드

8) Food Consumption, Prices, and Expenditures, 1970-1997. USDA, p.40

9) Amber Waves. USDA. Sep. 2003. p.4

표 5. 과일과 채소의 1인당 연간 소비량

	1970	1980	1990	1997	2000	(단위 : %)
과일	237.7	262.4	273.5	294.7	279.4	
신선	101.2	104.8	116.3	133.2	126.8	
가공	136.5	157.5	157.1	161.5	152.7	
채소	335.4	336.4	382.8	416.0	428.3	
신선	152.9	149.3	167.2	185.6	201.7	
가공	182.5	187.2	215.6	230.4	226.6	

자료 : Food Consumption, Prices, and Expenditures, 1970-1997. USDA. p.40

의 소비량을 나타내고, 2000년에는 279.4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과일의 전체 소비량은 1970년대의 소비량보다 12%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¹⁰⁾. 또 과일소비량 증가 중에서 멜론의 소비 증대가 두드러진다.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을 신선과 가공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식품 소비선호 변화를 보인다. 즉, 신선 및 냉동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증가하고, 통조림된 제품 등 가공제품 소비는 감소되고 있다. 미국인의 1인당 신선과일 소비량은 2000년의 경우는 126.8파운드로 이는 1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10.5파운드나 증가하였다. 신선채소의 경우는 2000년은 201.7파운드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바,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34.5파운드나 증가한 수치이다. 가공채소의 2000년도 소비량은 226.6파운드에 이른다. 과채류의 소비 증가를 품목별로 보면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등이다. 토마토는 1999년에 1인당 17.8파운드의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렌지는 14.9파운드, 포도는 8.2파운드를 나타낸다. 품목별로 보면 10년 전이나 현재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바나나, 사과,

수박이다. 채소류의 소비는 10년 전에는 감자, 상치, 토마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양파 소비가 늘어나 감자, 상추, 양파의 순으로 소비된다. 과채류의 소비 증가의 정도를 품목별로 보면 신선채소와 멜론은 33% 증가되고, 신선과일은 26% 정도 소비가 증가되었다. 신선 채소의 소비는 대부분이 신선감자이며 신선감자의 소비는 1977~1979년과 1997~1999년 사이에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한편 1997~1999년 사이에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를 나타낸 것은 바나나이다. 바나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7~1999년의 바나나의 소비는 1977~1979년의 소비량에 비해 약 20%나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비가 증가된 과일은 사과와 오렌지 등이다. 다만 신선 사과나 포도, 딸기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선 오렌지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97~199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은 오렌지인데 오렌지의 소비는 86%가 오렌지 주스 형태로 소비된다. 채소의 경우,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감자이며 대부분이 프렌치프라이의 형태로 소비된다.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표 6. 주요 신선품의 소비량변화

품 목	1990	1994	1999	(단위 : %)
포도	7.9	7.3	8.2	
오렌지	12.4	13.1	14.9	
그레이프루트	6.6	6.1	5.9	
토마토	15.5	16.4	17.8	
시금치/포장 샐러드	31.6	31.0	31.6	

자료 : USDA, ERS. 전계서. p.7

10) Agriculture Fact Book. USDA. Mar. 2003. p.18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정부의 소비권장 정책도 중요한 요인이나 그 보다도 편의식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식사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미 조리된 신선채소나 과일의 구매를 증가시킨다. 또 식당이나 간이음식점도 조리된 식품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과일이나 야채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득이나 구매수준의 향상은 새로운 식품이나 외국의 과채류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켜 이를 품목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건강식 선호에 따라 채소와 과일의 소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풍부한 시장 접근기회의 확대, 즉 다양한 종류의 채소나 과일을 얼마든지 인근의 슈퍼 등의 가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채소와 과일의 소비증대 경향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채소류는 20년 전에 비하여 약 24% 증가를, 과일류는 약 8%의 소비 증가를 나타낸다.

더불어 과일과 채소의 소비가 증대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의 권장 정책이다. 연방정부와 개인 연구기관에서도 건강유지를 위하여 균형적인 식단을 적극 권장한 결과 과일과 채소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균형 권장식단(Food Guide Pyramid)은 암 발생률을 줄인다고 하고 있으며, 균형적인 식사를 위하여 1일 5~9회의 과일이나 야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 건강 사회실천을 위한 계획(The Produce for Better Health Foundation)의 1일 5회 섭취 프로그램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통의 미국인은 미 농무부의 권장영양 지침인 "5 A Day for better health"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일의 권장 소비 지침을 따르는 미국인은 약 23% 정도이며, 채소의 경우는 약 41% 정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격수준과 소비자의 편의성 추구 등을 일반적인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에 있어서 편

의성은 식품소비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바, 편의성을 추구하는 미국인의 식품소비 특성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선과일 중 바나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값이 싼 점도 있으나 먹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추세는 사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인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과일은 먹기에 가장 편리한 과일이다. 또 채소와 과일의 소비에 있어서도 저장기술 등 기술변화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형태가 다소 변하기도 하고, 수입식품도 늘어나 이를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미국의 식품시장은 다양하고 소비패턴은 변화하고 있다. 식품소비패턴은 인종이나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내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변화를 나타낸다. 일률적으로 미국인의 식품소비 추세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육류와 영양중심의 식품 소비패턴은 최근 여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쇠고기등 적색육의 소비는 감소하고 과일과 채소류의 소비가 늘어난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우려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건강식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건강 기능식품 내지 건강 보조식품의 시장이 약 450억불 규모로 세계전체의 건강 식품 시장의 약 39%를 차지한다. 미국에는 해마다 약 4천 여 종의 신상품이 소개되고 약 6천 여 종의 성분 재배합내지 라인확장 상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식품시장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건강"이다. 또 기존의 저지방 내지 채식위주의 건강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육류 중심의 식품에서 비만을 방지하는 콩이나 유기식품, 기능성 식품으로 건강식품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반까지는 "fat free, cholesterol free, salt free" 등 식품에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 문제성분을 제거하는 추세에서 이제는 섬유소, 항산화제 등 특정한 성분을 첨가하여 기능성 식품을 개발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이러

한 미국인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식품의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의 식품 소비패턴을 연구하고, 식품시장을 분석하며,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식품의 미국시장 수출은 약 2억불 남짓하다.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를 중시하는 미국의 식품시장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들의 수요에 알맞는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여 우리 식품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미국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수(2004). 우리식품 미국시장 공략하기. 도서출판 한라.
- 김재수(2003). 미국의 농업여전변화와 한국농산물의 대미수출증대방안. 농촌경제 제26권 제4호.
- 김재수(2002).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농촌경제 제25권 제3호.
- 농수산물유통공사(1995). 아시아 고매식품의 세계화.
- 곽동경(1998). 미국의 전통식문화의 형성과 적응을 통한 발전.(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심포지움)
- Food Expenditures by U.S. Households, USDA, 2003
- America's Eating habits, USDA. 1999
- Globalization of the Processed Foods Markets, USDA. 1996